

강애란 개인전

The Concern of Book, the Consolation of Light 책의 근심, 빛의 위안

일정: 2014. 8. 28 (목) - 10. 26 (일)

장소: 갤러리 시몬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9)

문의: T. 549-3031 / 720-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이미지 및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 PW: simon (guest 폴더 내 강애란 개인전 폴더)



갤러리 시몬에서는 철학적, 사회적인 담론과 뉴미디어라는 매체의 조합을 개념화하는 증견작가 강애란의 개인전 “The Concern of Book, the Consolation of Light(책의 근심, 빛의 위안)”을 8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일관되게 책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을 발표해온 강애란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표작인 디지털 북 프로젝트를 비롯해, LED와 사실적인 재현기법을 혼용한 회화작품과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상작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1층에 전시된 “Luminous Words(빛나는 낱말들)”은 팝아트적인 스타일의 평면회화에 디지털 텍스트로 시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대미술사조와 담론들을 레퍼런스로 제시한다. 2층과 3층의 연작 “Cella Auctor Mulieris(여전사의 방)”은 보다 지역적이며 역사적인 성격을 띤다. 작가는 2층의 “12인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및 “위안부 배춘희 할머니의 가시는 길”에서 국가주의의 탐욕과 민족주의의 무기력 사이에서 어두운 그늘을 감당해야 했던 삶들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다. 3층의 “신사임당의 사친”과 그 외 허난설헌의 “유선사”는 진보적인 삶을 살았던 역사적인 여성상들의 이야기와 정서를 디지털적인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난 강애란은 1983년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의 다마 미술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비아 비엔날레, 독일의 ZKM 등 해외 유수의 미술관, 비엔날레 등에 초청되어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선보이며, 현재 국제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gallery **simon**



The Pile of Books – Horizontal type II, 2014, acrylic on canvas, LED lighting, 640 x 320 cm (left)
Marshall McLuhan, 2014, acrylic on shaped canvas, LED lighting, 151 x 87.5 cm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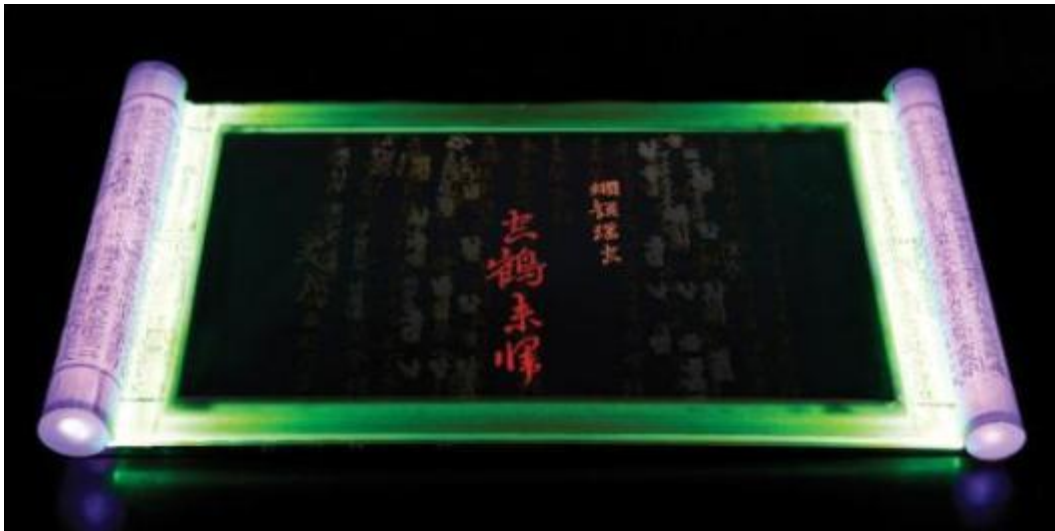
Testimonies of Twelv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2014, installation view



Commemorating Ms. Chunhui Bea's life (위안부 배춘희 할머니의 가시는 길), 2014, installation view



Digital Book Project - Oriental version, 申師任堂-思親 (Pining for Mother by Shin Saimdang), 2014, installation view



許蘭雪軒-遊仙詞 (Wandering in Paradise by Heo Nanseolheon), 2013 1'19'', media sculpture, 70 x 38 cm